

경제동향

요 약

경 기 생산/출하/재고/외국인 투자

고 용 취업자/실업자/물가

금 용 시중자금사정/창업동향/어음부도율

부동산 건설경기/주택가격



요 약

경 기

- 1월중 서울의 경기 회복세 불투명
 - 산업생산은 0.5% 감소하여 하락세 지속
 - 생산자 제품재고는 9.3% 증가

고 용

- 1월중 서울의 고용여건 다소 악화
 - 취업비수기와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률 0.5%p 증가
- 1월중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 담배가격과 건강보험수가 인상 등으로 3.2% 증가

금 용

- 1월중 금리 상승
 - 채권공급물량 확대 등으로 인하여 국고채 수익율 0.78%p 증가
- 1월중 종합주가지수 상승
 - 기업실적 호조 및 시중자금 증시유입 등으로 종합주가지수 27.78 상승
- 원/달러 환율 하락
 - 원화강세, 외국인의 주식시장 자금유입이 지속되면서 하락하여 1,026 기록
- 1월중 서울의 창업여건 개선
 - 신설법인수는 24.3% 증가, 어음부도율은 0.03%로 안정세

부 동 산

- 서울 건설경기 침체 지속
 - 건축허가면적은 35.9% 감소하여 2개월 연속 하락세 유지
- 서울 부동산 시장 침체 지속
 - 주택매매가격은 1.5% 감소하여 2004년 10월 이후 4개월 연속 하락

(증감의 비교시점은 전년동월대비임, 단 금융은 전월대비임)

〈표〉 1월 주요경제 지표

(단위: %, %p)

구분		2004.1	2004.10	2004.11	2004.12	2005.1
경기	산업생산	-3.8	-2.9	1.0	0.0	-0.5
	생산자 제품재고	34.6	12.3	10.8	9.8	9.3
고용	실업률	-0.1	0.0	-0.2	0.2	0.5
	소비자물가	4.0	4.2	3.5	3.2	3.2
금융	국고채(3년)	0.12	-0.08	-0.22	-0.03	0.78
	환율	-18.9	-32.2	-71.4	-13.1	-9.5
부동산	건축허가면적	-18.2	-23.3	40.9	-51.7	-35.9
	주택매매가격	7.5	-1.9	-1.7	-1.4	-1.5

| 생 · 산 |

산업생산 소폭 하락, 경기 둔화 지속

✓ 전국의 1월중 산업생산 큰 폭 증가

- 1월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4.2%를 기록, 큰 폭으로 상승
- 이러한 증가는 설 연휴 변동에 따른 조업일수차 증가와 자동차, IT제품 등의 수출호조 영향에 기인함
- 세부 업종별로 담배(-57.0%), 인쇄출판(-3.8%) 등은 하락하였으나 그 외 자동차(45.7%), 영상음향통신(27.3%), 반도체(21.0%) 등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산업생산의 증가를 주도하였음
- 전월대비 3.1%로 소폭 증가에 그쳤으며, 반도체, 영상음향통신 등을 위주로 증가세가 유지되었음
- 전반적으로 전국의 산업생산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1월의 조업일수 증가 등의 요인을 고려할 경우 예년과 비슷한 증가세를 유지함

✓ 서울의 1월중 산업생산 소폭 감소

- 1월중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5%를 기록, 감소세 지속
- 전국의 산업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과는 달리 가구 및 기타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등의 하락으로 소폭의 감소세를 나타냄
- 전월대비 -1.2%를 기록하여 전월(-1.1%)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세부 업종별로 전자계측기 등의 의료정밀광학기기(84.9%), 메리야쓰외의를 포함한 섬유제품(14.1%) 등에서 증가하였음
- 반면, 장난감 등의 가구 및 기타제품(-64.7%), 주차기를 포함한 기타 기계 및 장비(-19.4%), 서적 등의 출판 및 인쇄(-6.1%) 등에서 감소를 나타냄

✓ 서울의 산업생산 중공업부문 증가, 경공업부문 감소

- 산업구조별로 전년동월대비 중공업부문은 2.9%로 증가한 반면, 경공업부문은 -2.6%를 기록, 소폭의 감소를 보임

- 중공업부문에 세부업종별로 의료정밀광학기기(84.9%)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외에 가구 및 기타제품(-64.7%), 기타 기계 및 장비(-19.4%) 등이 감소를 보임
- 경공업부문에서는 출판 및 인쇄(-6.1%), 가죽, 가방 및 신발(-2.3%) 등의 업종에서 감소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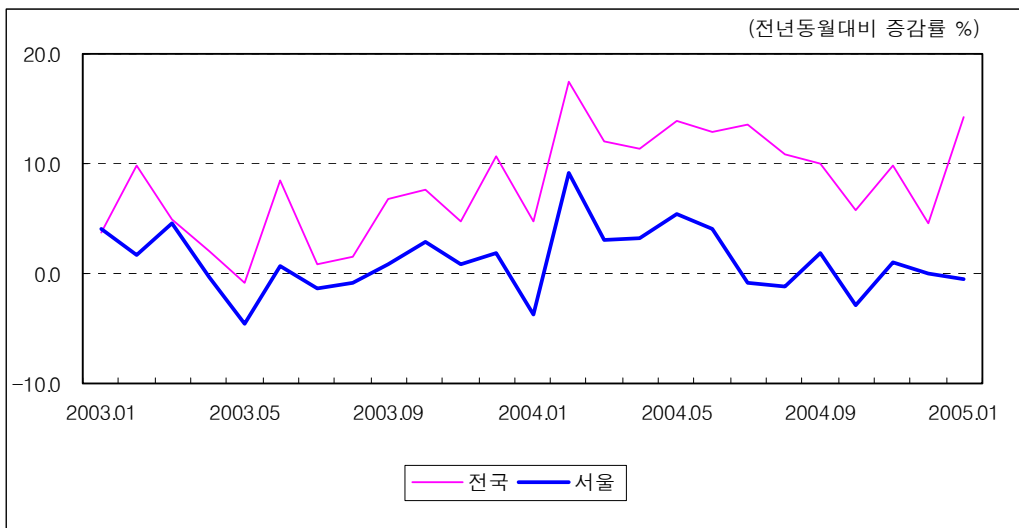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단위: %)

구 분		2004	2004.1	2004.4/4	2004.12	2005.1
전년동월(기)비	전국	10.4	4.7	6.7	4.6	14.2
	서울	1.6	-3.8	-0.6	0.0	-0.5
	(중공업)	5.0	0.6	4.4	11.8	2.9
	(경공업)	-0.6	-6.0	-3.1	-5.7	-2.6
전월(기)비	전국	-	0.7	2.1	-0.8	3.1
	서울	-	3.1	0.7	-1.1	-1.2

주: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0=100)

자료: 통계청, 서울통계사무소, [2005년 1월 서울시 산업활동동향]



〈그림〉 전국, 서울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생산자 제품출하 소폭 하락, 감소세 지속

- ✓ 전국의 1월중 생산자 제품출하 큰 폭으로 증가
 - 1월 생산자 제품출하는 전년동월대비 12.4%를 기록, 큰 폭으로 상승
 - 이러한 증가세는 주로 자동차, 반도체 등의 지속적인 수출호조 영향에 기인함
 - 세부 업종별로는 담배(-61.2%), 인쇄출판(-4.5%) 등은 감소하였으나 그 외 자동차(44.8%), 영상음향통신(22.7%), 반도체(22.2%)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생산자 제품출하의 증가를 주도하였음
 - 전월대비 3.5%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영상음향통신, 반도체 등이 증가를 주도하였음
 - 전반적으로 전국의 생산자 제품출하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경기회복의 청신호로 보기에는 미약함

- ✓ 서울의 1월중 생산자 제품출하 소폭 감소
 - 1월 생산자 제품출하는 전년동월대비 -1.0%를 기록,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 전국의 제품출하와는 큰 대조를 보임
 - 전월대비 0.1%의 미미한 증가를 기록하였으나 전월(-2.9%)에 비해 증가세로 반전됨
 - 세부 업종별로 전자계측기 등의 의료정밀광학기기(73.2%), 메리야쓰외의를 포함한 섬유제품(9.1%)에서 증가하였음
 - 반면, 귀금속 장신구 등의 가구 및 기타제품(-59.0%), 주차기 등의 기타 기계 및 장비(-20.5%), 서적과 같은 출판 인쇄(-7.4%)에서 감소를 나타냄

- ✓ 서울의 생산자 제품출하 중공업부문 소폭 증가, 경공업부문 감소
 - 산업구조별로 전년동월대비 중공업부문(0.9%)은 소폭 증가한데 반하여 경공업부문은(-2.8%) 감소를 나타냄
 - 세부업종별로 중공업부문에서는 의료정밀광학기기(73.2%), 자동차 및 트레일러(31.2%) 등이 증가하였으나 가구 및 기타제품(-59.0%)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경공업부문에서는 가죽, 가방 및 신발(-19.6%), 출판인쇄(-7.4%)등이 감소를 나타냄

〈표〉 생산자 제품출하 증감률 추이

(단위: %)

구 분		2004	2004.1	2004.4/4	2004.12	2005.1
전년동월(기)비	전국	9.1	4.0	5.8	3.3	12.4
	서울	1.1	-3.9	-0.7	-1.6	-1.0
	(중공업)	2.7	-0.4	3.3	7.0	0.9
	(경공업)	0.0	-5.8	-2.8	-6.1	-2.8
전월(기)비	전국	-	0.7	1.0	-1.9	3.5
	서울	-	3.8	1.2	-2.9	0.1

주: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0=100)

자료: 통계청, 서울통계사무소, [2005년 1월 서울시 산업활동동향]



〈그림〉 전국, 서울 생산자 제품출하 증감률 추이

생산자 제품재고 증가세 지속

- ✓ **전국의 1월중 생산자 제품재고 큰 폭 상승**
 - 1월 생산자 제품재고는 전년동월대비 13.0%를 기록,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이러한 증가세는 반도체, 제1차 금속 등이 크게 증가한데에 기인함
 - 세부 업종별로는 가죽 및 신발(-20.7%), 사무 회계용 기계(-15.0%) 등이 감소하였음
 - 그 외 반도체(88.5%), 제1차 금속(32.6%), 영상음향통신(15.8%)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생산자 제품재고의 증가를 주도하였음
 - 전월대비 2.3%로 소폭 증가함
 - 재고율은 98.1%로 전월에 비해 -1.3%p 감소함
 - 전반적으로 전국의 생산자 제품재고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산업생산의 증가가 급증한데에도 일부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 **서울의 1월중 생산자 제품재고 증가세 지속**
 - 1월 생산자 제품재고는 전년동월대비 9.3%를 기록하여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국의 제품재고보다는 낮은 수준임
 - 세부 업종별로는 칼라강관 등의 제1차 금속산업(66.1%), 껌 등의 음식료품(47.2%), 기성 보통외의, 소아용기성외의에 해당하는 의복 및 모피제품(32.6%)에서 증가하였음
 - 반면, 가죽, 가방 및 신발(-46.1%), 휴대용 전화기와 같은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27.9%)에서 감소를 나타냄
 - 전월대비 -0.4%를 기록하여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임
 - 재고율은 143.9%로 지난달보다 -0.7%p 감소하였음

- ✓ **서울의 생산자 제품재고 중공업부문 감소, 경공업부문 증가**
 - 산업구조별로 전년동월대비 중공업부문은 -7.4%로 감소한 반면, 경공업부문은 21.9%를 기록,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냄
 - 중공업부문에서는 세부업종별로 가구 및 기타제품(70.2%)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27.9%), 자동차 및 트레일러(-24.1%)등이 감소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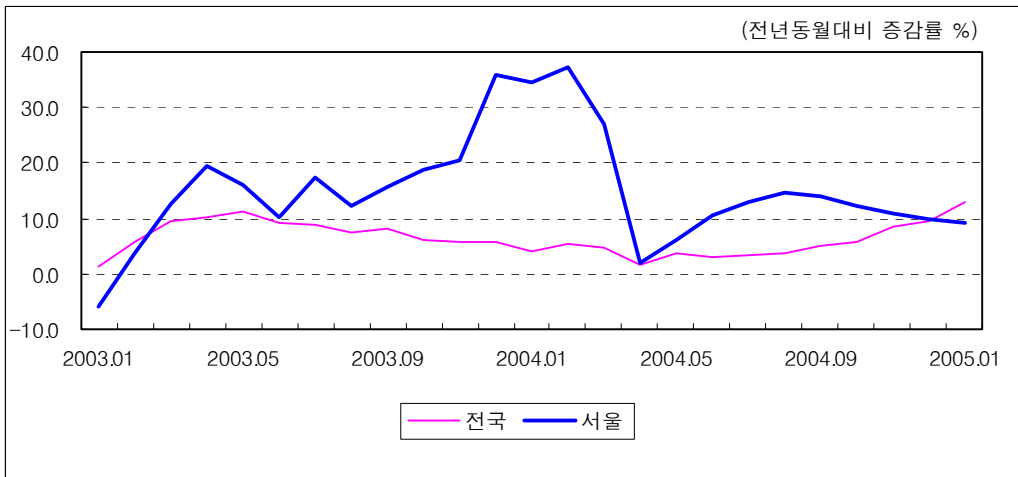
- 경공업부문에서는 음식료품(47.2%), 의복 및 모피제품(32.6%) 등이 증가를 나타냄

〈표〉 생산자 제품재고 증감률 추이

(단위: %)

구분		2004					2005
		1	9	10	11	12	1
전년동월(기)비	전국	3.6	5.2	5.9	8.5	9.4	13.0
	서울	34.6	14.1	12.3	10.8	9.8	9.3
	(중공업)	50.1	-5.6	2.7	-1.1	-8.3	-7.4
	(경공업)	24.8	28.2	18.4	18.7	23.3	21.9
전월비	전국	-1.3	1.2	0.2	2.0	1.2	2.3
	서울	1.5	2.3	1.4	1.8	2.2	-0.4
재고율	전국	92.2	95.7	95.6	96.4	99.4	98.1
	서울	126.9	134.7	137.0	137.5	144.6	143.9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계절조정재고지수÷계절조정출하지수)×100 /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0=100)
 자료: 통계청, 서울통계사무소, [2005년 1월 서울시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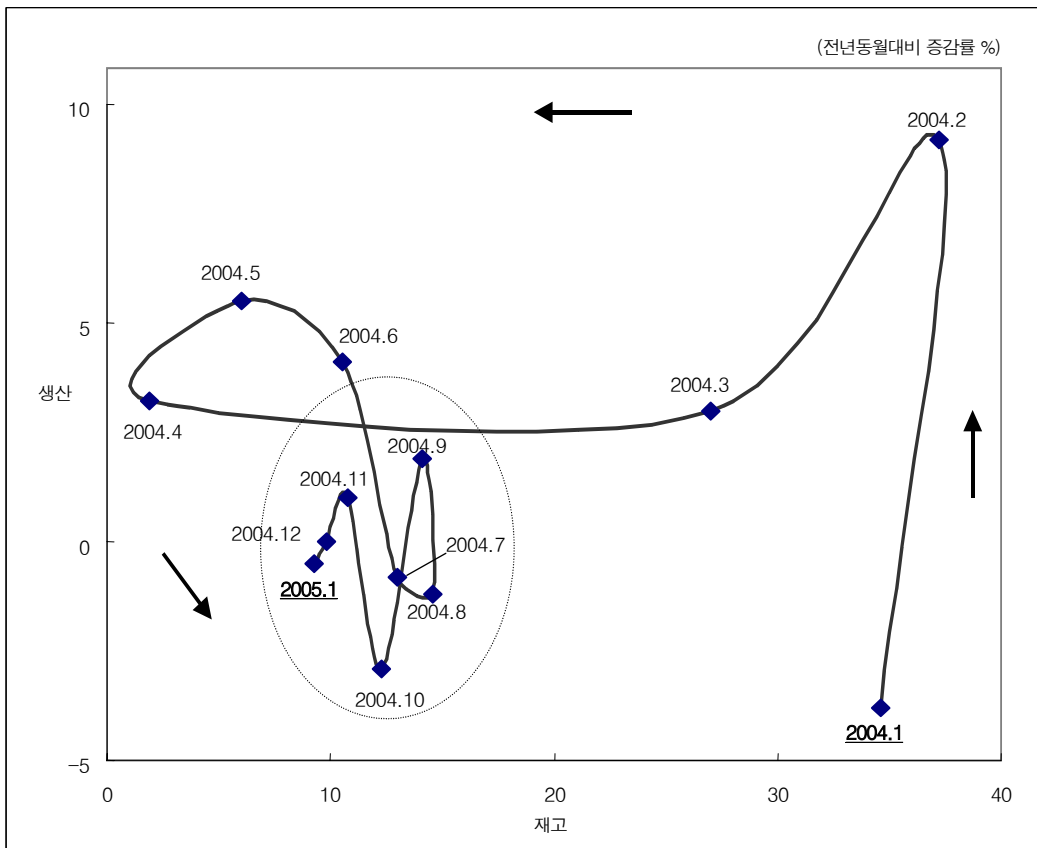


〈그림〉 전국, 서울 생산자 제품재고 증감률 추이

경기 침체 지속

✓ 2005년 1월중 경기침체 지속

- 1월의 산업활동 동향을 종합하면 산업생산이 감소하고 재고가 증가하는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됨
- 2005년 1월 산업생산은 -0.5% 감소하여 경기하강국면이 지속되고 있음
- 2005년 1월 재고는 9.3% 증가, 2004년 8월 이후의 재고조정 과정이 지속되고 있음



<그림> 생산, 재고 증감률 추이

| 외 · 국 · 인 · 투 · 자 |

2004년 서울의 외국인투자 큰 폭 증가

- ✓ **전국의 2004년 외국인 투자금액 2배로 증가**
 - 전국의 2004년 외국인 투자금액은 12,770백만불로 전년대비 97.4% 증가
 - 반면 투자건수에 있어서는 3,070건으로 전년대비 19.7% 증가
 - 산업별로는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전년대비 각각 265.9%, 48.2% 증가하였음
 - 이중 제조업이 48.6%, 서비스업이 48.0%의 비중을 차지함
 - 세부 업종별로 보면, 투자액은 금융·보험(3,211백만불), 전기·전자(2,944백만불), 화공(1,377백만불), 도소매 유통(1,126백만불), 운송용기계(907백만불) 순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율은 문화·오락 업종이 전년대비 1,834%로 가장 높게 나타냄
 - 전국의 외국인 투자 현황은 전년대비 2배로 증가하여 99년 이후 하락세에서 처음으로 증가세로 반전하였음

- ✓ **서울의 2004년 외국인 투자금액 큰 폭 증가**
 - 서울의 2004년 외국인 투자금액은 5,580백만불로 전년대비 41.9% 증가
 - 반면 투자건수에 있어서는 1,483건으로 전년대비 -0.3% 소폭 감소
 - 산업별로는 2004년 투자금액 기준으로 서비스 부문이 5,252백만불로 전년대비 54.2% 증가
 - 전체 비중의 94.1%를 차지하였음
 - 세부 업종별로 투자금액은 금융·보험(3,154백만불), 도·소매 유통(999백만불), 운수·창고(300백만불), 문화·오락(256백만불), 비즈니스·서비스업(236백만불)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금융·보험이 전년대비 92.0%를 기록,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제조업부문은 투자금액에 있어 소액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전년대비 91.6% 증가하여 2배에 가까운 신장세를 보인 251백만불을 기록함
 - 기타 전기, 가스, 수도, 건설 등은 전년대비 -80.6%를 기록하여 큰 폭으로 감소한 77백만불에 그침
 - 서울의 외국인 투자는 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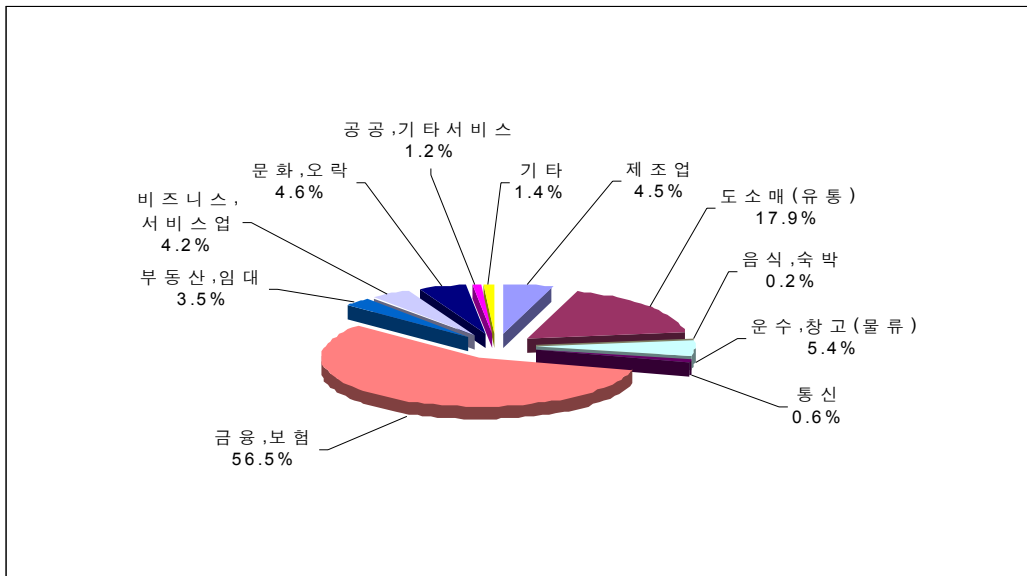
〈표〉 외국인투자 현황

(단위: 건, 백만불, %)

구분	2003			2004			
	건수	투자금액	금액비율	건수	투자금액	금액비율	
전체	전국	2,564	6,468	100	3,070	12,770	100
	서울	1,488	3,933	100	1,483	5,580	100
제조업	162	131	3.3	142	251	4.5	
서비스업	1,294	3,406	86.6	1,323	5,252	94.1	
도소매(유통)	786	786	20.0	765	999	17.9	
음식·숙박	49	6	0.2	39	10	0.2	
운수·창고(물류)	38	80	2.0	44	300	5.4	
통신	13	503	12.8	13	34	0.6	
금융·보험	139	1,643	41.8	119	3,154	56.5	
부동산·임대	45	148	3.8	52	195	3.5	
비즈니스서비스업	181	207	5.3	202	236	4.2	
문화·오락	13	5	0.1	17	256	4.6	
공공·기타서비스	30	28	0.7	72	68	1.2	
기타	28	385	10.0	18	77	1.4	

주: 건수 및 투자금액은 신고기준임.

자료: 산업자원부, [2004년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및 2005년 전망과 과제]



〈그림〉 서울의 산업별 외국인투자 구성(2004)

| 취·업·자 |

서울의 취업자 전월보다 감소, 고용사정 악화

- ✓ **전국의 1월중 취업자 감소**
 - 1월 취업자는 22,078천명으로 전월대비 -1.9% 감소, 전년동월대비 0.6% 증가함
 - 전국의 고용사정은 전반적으로 전월대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악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 **서울의 1월중 취업자 전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감소**
 - 서울의 1월 취업자는 4,796천명으로 전월대비 -1.2% 감소, 전년동월대비 0.1% 증가함
 - 서울의 취업자 수도 작년보다는 양호하나, 감소추세를 나타내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음
- ✓ **여성 및 건설업 부문 고용사정 악화**
 - 성별 취업자는 남성의 경우 2,791천명으로 전월대비 -0.2% 소폭 감소한 반면, 여성은 2,005천명으로 -2.5% 감소하여 여성의 고용사정이 더 악화됨
 - 산업별로는 전월대비 건설업부문(-3.6%), 사업·개인·공공서비스부문 (-1.7%)에서 감소하는 등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1.6%로 감소를 나타냄
 - 반면, 농림어업(3.7%), 제조업(0.9%) 등은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산업별 취업여건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위축과 경기침체를 반영하는 것임
- ✓ **사무직 및 서비스직, 일용직 근로자 감소**
 - 직업별로는 사무직종사자가 -1.0%, 서비스·판매종사자가 -0.2%의 감소를 보임
 -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의 여파가 사무직과 서비스·판매직의 취업여건에 더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고용형태별로는 임금근로자 가운데 일용직 근로자는(- 2.3%), 임시근로자(-1.3%), 상용근로자(-1.0%) 감소하였음

• 고용

-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취업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음을 나타냄

〈표〉 2005년 1월 고용동향

(단위: 천명, %)

구분	2004.1	2004.12	2005.1	전년 동월비		전월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취업자	전국	21,936	22,495	22,078	142	0.6	-417	-1.9
	서울	4,792	4,854	4,796	4	0.1	-58	-1.2
농림어업	3	3	3	0	7.7	0	3.7	
광공업	790	781	789	-1	-0.1	8	1.0	
제조업	789	781	788	-1	-0.1	7	0.9	
사회간접 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4,000	4,070	4,004	5	0.1	-66	-1.6	
건설업	393	412	397	4	1.0	-15	-3.6	
도소매·음식숙박	1,465	1,456	1,433	-32	-2.2	-24	-1.6	
사업·개인·공공서비스	1,619	1,677	1,649	30	1.8	-28	-1.7	
전기·운수·통신·금융	522	524	525	3	0.5	1	0.1	

자료: 통계청, 서울통계사무소, [2005년 1월 서울시 고용동향]

| 실 · 업 · 자 |

실업률 증가세 속에서 고용여건 악화

✓ 전국의 1월중 실업자 증가

- 1월 실업자는 904천명으로 전월대비 5.7% 증가, 전년동월대비 5.8%로 증가를 나타냄
- 실업률은 3.9%로 전월대비 0.2%p 상승
- 1월중 전국의 실업자수 및 실업률의 증가에 비추어 볼 때, 전국의 고용사정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서울의 1월중 실업자 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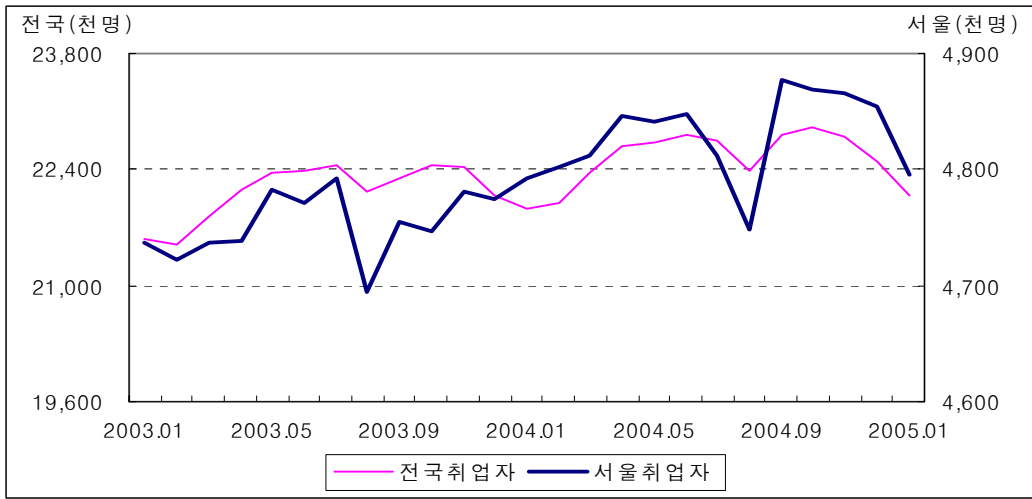
- 1월 실업자는 262천명으로 전월대비 5.6%의 증가, 전년동월대비 10.1%로 증가를 나타냄
- 서울의 실업률은 2004년 9월 4.3%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1월중 5.2%를 기록함
- 전월대비 실업자 및 실업률의 증가는 건설업에서의 계절적 요인 및 경기침체에 따른 취업 감소추세와 함께, 재학생과 졸업예정자들의 구직활동이 증가한데 따른 것임
- 한편, 서울의 실업률은 전국에 비해 1.3%p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 서울의 고용사정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2005년 1월 실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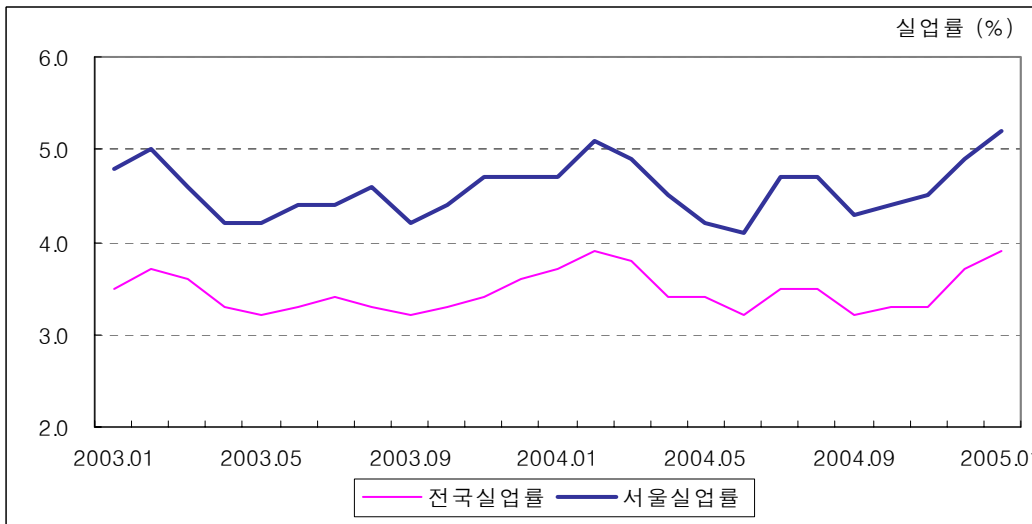
(단위: 천명, %, %p)

구분		2004.1	2004.12	2005.1	전년동월비		전월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실업자	854	855	904	50	5.8	50	5.7
	(실업률)	(3.7)	(3.7)	(3.9)	(0.2)	-	(0.2)	-
서울	실업자	238	248	262	24	10.1	14	5.6
	(실업률)	(4.7)	(4.9)	(5.2)	(0.5)	-	(0.3)	-

자료: 통계청, 서울통계사무소, [2005년 1월 서울시 고용동향]



<그림> 전국, 서울 월별 취업자 동향



<그림> 전국, 서울 실업률 추이

| 물 · 가 |

소비자물가 상승, 상승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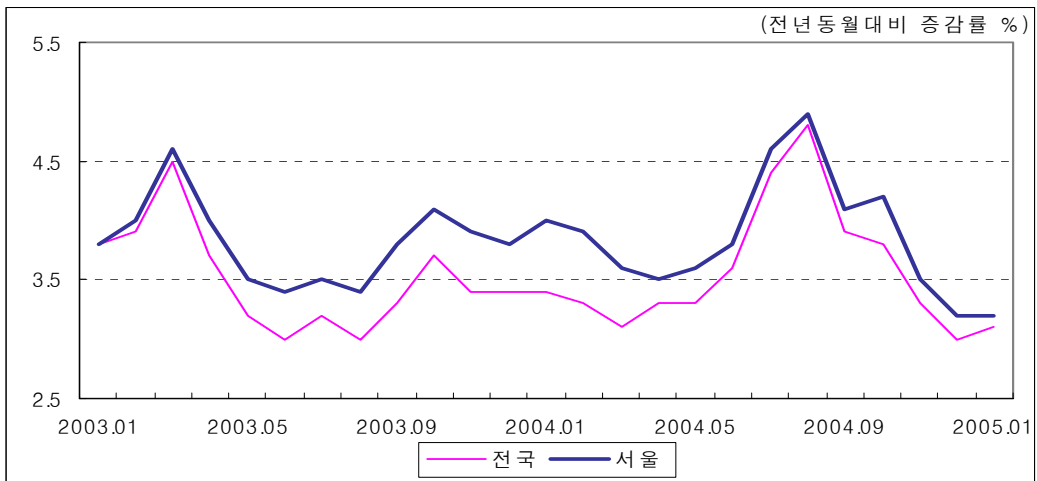
- ✓ **전국의 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
 - 1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7% 상승한 반면, 전년동월대비 3.1% 상승함
 - 이는 채소, 과일류의 출하부진으로 농축수산물물의 물가가 오르고, 담배 등 공업제품과 건강보험수가, 교통요금 등 서비스부문의 가격인상에 기인함
- ✓ **서울의 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
 - 1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6% 상승, 전년동월대비 3.2% 상승함
 - 서울의 소비자 물가는 식료품, 보건의료, 담배가격 등의 인상으로 인해 전국의 소비자물가와 비슷한 추이를 나타냄
 - 상품성질별로는 농축수산물 및 공업제품 등의 상품부문은 전월대비 1.2%로 큰 폭의 상승을 보인 반면, 집세,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부문은 0.2%의 미미한 상승을 보임
 - 비목별로는 전월대비 가구집기·가사용품(-0.3%), 교양오락부문(-0.3%)은 하락하였으나, 담배가격이 오른 기타잡비(5.8%), 건강보험수가가 인상된 보건의료(1.7%), 과일 및 채소류가 오른 식료품부문(0.9%) 등이 상승함
- ✓ **생활물가지수 상승, 신선식품지수 소폭 상승**
 -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생활품을 위주로 하는 생활물가는 전년동월대비 5.1%, 전월대비 1.0%로 상승함
 - 계절적 변동이 큰 어개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동월대비 0.8%, 전월대비 2.7%로 상승함
 - 이는 신선식품 중 전년동월대비 채소류는 하락하였으나, 과일류 물가가 크게 오른데 기인함.

〈표〉 소비자 물가 동향

(단위: 2000=100, %)

구분		2004.1	2004.12	2005.1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112.7	115.4	116.2	3.1	0.7	
	상품성질별 지수	상품	112.3	114.5	115.9	3.2	1.2
		서비스	112.9	116.1	116.4	3.1	0.3
	생활물가지수	114.5	118.6	119.9	4.7	1.1	
	신선식품지수	133.6	126.5	130.9	-2.0	3.5	
서울	소비자물가지수	114.2	117.1	117.8	3.2	0.6	
	상품성질별 지수	상품	112.4	115.3	116.7	3.8	1.2
		서비스	115.4	118.4	118.6	2.8	0.2
	생활물가지수	114.9	119.6	120.8	5.1	1.0	
	신선식품지수	135.5	133.0	136.6	0.8	2.7	

자료: 통계청, 서울통계사무소, [2005년 1월 서울시 소비자물가 동향]



〈그림〉 전국, 서울 소비자물가 장기추이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 큰 폭 상승

✓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 큰 폭 상승

- 1월초 정부의 국고채 발행계획 규모확대 발표(1.3일)를 계기로 상승반전 후 정책금리 인하 기대 약화, 경기회복 기대감, 은행·투신사 등의 손절매물 출회 등으로 금리 큰 폭 상승
- 1월하순에는 시장안정대책 실시 등의 영향으로 급등세가 진정되었으나 환율하락에 따른 외평채 추가발행 가능성, 재정증권 발행규모 확대 등으로 재상승
- 국고채 및 외평채 발행규모는 2004년 11월 6.28조원, 12월 5.57조원에서 2005년 1월 8.27조원으로 증가

✓ 회사채수익률(3년)은 지표금리의 상승에 따라 상승

- 회사채수익률(3년)은 전월대비 0.81%p 상승하여 4.53%를 기록
- CD(91일)는 전월대비 0.14%p 상승하여 3.57%를 기록하여 증가세를 유지
- 콜금리(1일)는 전월대비 -0.03%p 하락하여 3.26%를 기록
- 장단기 금리차는 단기금리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데 비해 장기금리는 급등함에 따라 큰 폭으로 확대되어 0.80%p를 기록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단위: %, %p)

구 분	2004					2005	전월비
	3월	6월	9월	11월	12월	1월	
국고채(3년)	4.50	4.24	3.53	3.31	3.28	4.06	0.78
회사채(3년)	5.30	4.84	4.03	3.76	3.72	4.53	0.81
CD(91일)	3.90	3.93	3.54	3.36	3.43	3.57	0.14
콜금리(1일)	3.74	3.78	3.55	3.26	3.29	3.26	-0.03
장·단기 Spread	0.76	0.46	-0.02	0.05	-0.01	0.80	-
종합주가지수	880.50	785.79	835.09	878.06	895.92	932.70	27.78
코스닥지수	434.16	385.18	362.08	373.43	380.33	472.95	92.62
환율(W/US\$)	1,146.6	1,155.5	1,151.8	1,048.2	1,035.1	1,025.6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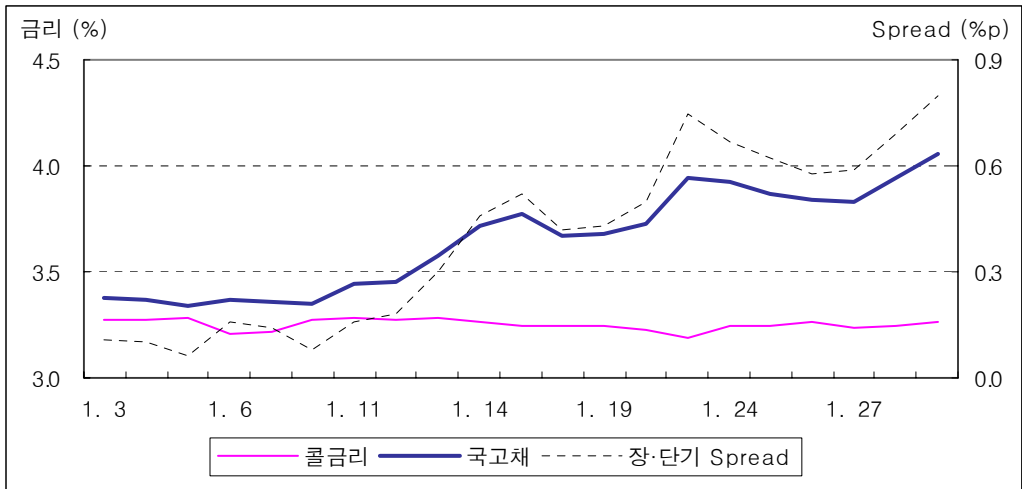
주: 장단기 Spread: 국고채-call금리

자료: 한국은행, [2005년 1월중 금융시장 동향], 한국개발연구원, [월간경제동향 1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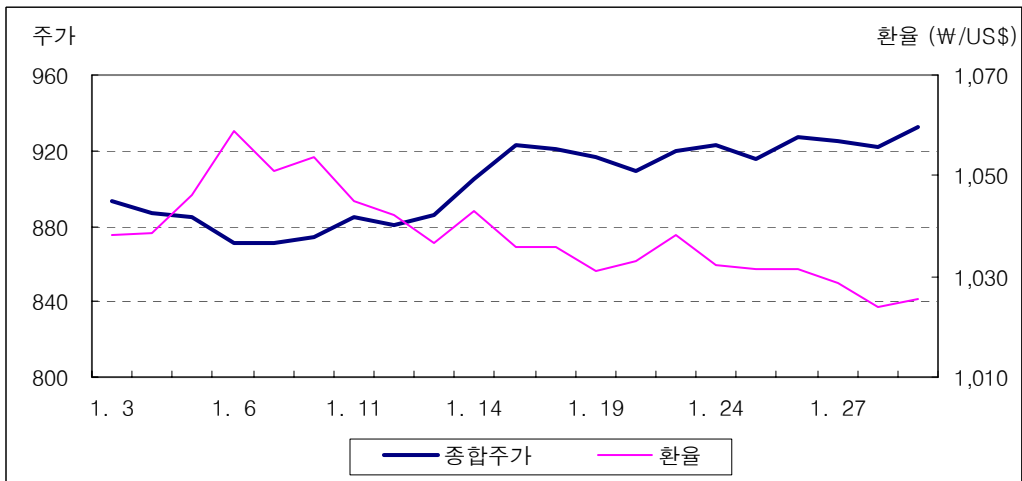
• 금융

- ✓ 주가는 정부의 벤처활성화 대책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상승
 - 종합주가지수는 기업실적 호조 및 외국인의 순매수, 시중자금의 증시유입 증가 등에 힘입어 전월대비 27.78 상승하여 932.70을 기록
 - 코스닥지수는 정부의 벤처기업 및 코스닥 활성화 대책 발표 등으로 급등세

- ✓ 원/달러 환율은 달러약세, 외국인의 주식시장 자금유입으로 하락
 - 1월 초 엔화약세 및 원/달러 상승에 따른 손절매물 출회 등으로 1,053까지 상승
 - 이후, 외국인 자금유입이 지속되면서 하락하여 1월말 1,026 기록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창 · 업 · 동 · 향 |

신설법인수 전월대비 증가

- ✓ 1월 서울시 신설법인수는 1,929개 업체로 전월대비 24.3% 증가
 - 전국 신설법인은 5,016개 업체로 전월대비 25.8% 증가
- ✓ 제조업은 전월대비 31.2% 증가
 - 세부업종별(전월대비)로는 기계금속업(200.0%), 섬유 및 가죽(88.2%), 음식료품(50.0%),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25.5%), 출판 및 인쇄업(9.7%)등은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및 운송장비(-43.8%), 고무 및 화학제품(-20.0%)은 감소
- ✓ 건설 및 설비업은 전월대비 15.7% 증가
 - 세부업종별(전월대비)로는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42.9%)은 감소한 반면, 건설업(29.9%)은 증가
- ✓ 서비스업은 전월대비 24.2% 증가
 - 세부업종별(전월대비)로는 교육서비스업(92.9%),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70.7%), 도매 및 소매업(37.9%), 운수업(26.7%), 사업서비스업(25.5%)이 증가하였으나, 통신업(-63.2%), 숙박 및 음식점업(-15.4%), 부동산 및 임대업(-13.7%)은 감소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 %)

구 분	2004.01	2004.12	2005.01	전년동월비		전월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4,069	3,986	5,016	947	23.3	1,030	25.8
서울	1,651	1,552	1,929	278	16.8	377	24.3
제조업	225	170	223	-2	-0.9	53	31.2
건설 및 설비업	122	108	125	3	2.5	17	15.7
서비스업	1,304	1,273	1,581	277	21.2	308	24.2

자료: 중소기업청, [2005년 1월 신설법인 동향]

| 어 · 음 · 부 · 도 · 율 |

어음부도율 안정세

- ✓ 어음부도율은 0.03% 전월대비 동일, 전년동월대비 -0.01%p 감소
 - 전국 어음부도율은 0.04%, 전월대비 -0.02%p 감소
- ✓ 부도업체 수는 109개 업체임, 전월대비 50개 업체 감소
 - 전국 부도업체 수는 286개 업체이며 전월대비 127개 업체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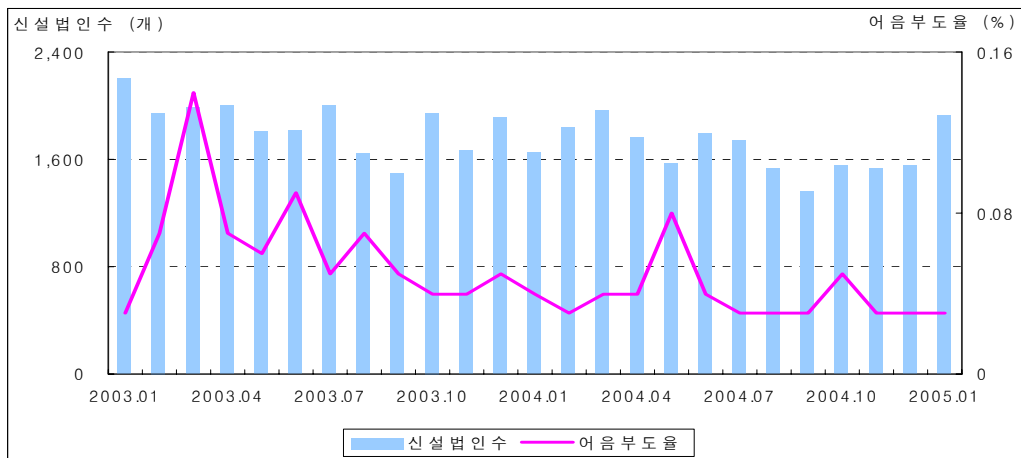
〈표〉 어음 부도율 및 부도업체수

(단위: 개, %, %p)

구 분		2004.1	2004.12	2005.1	전년동월비 증감	전월비 증감
전국	어음부도율	0.05	0.06	0.04	-0.01	-0.02
	부도업체 수	317	413	286	-31	-127
서울	어음부도율	0.04	0.03	0.03	-0.01	0
	부도업체 수	111	159	109	-2	-50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부도업체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

자료: 한국은행, [2005년 1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그림〉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건 · 설 · 경 · 기 |

서울시 건설경기 침체 지속

- ✓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은 2005년 1월에도 하락세 지속
 - 서울시 건축허가면적은 작년 1월에 비해 -35.9% 감소하여 2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
 - 서울시의 건설경기가 침체를 보인 반면, 전국의 건축허가면적은 경기도의 활황세 등으로 인해 3개월 연속 상승세 시현

- ✓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거용, 비주거용 모두 하락세 지속
 -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건축허가면적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이 대폭 감소(-48.5%)
 -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도 -32.8% 감소하여 주거용, 비주거용 모두 하락세를 지속
 - 전반적인 건축허가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문화/사회부문만은 대폭(89.2%) 증가하여 이채

〈표〉 건축물 허가면적

(단위: 천㎡, %)

구 분	2004.1	2004.12	2005.1	전년동월비 증감률	전월비 증감률	
전국	6,742	18,137	8,402	24.6	-53.7	
서울	1,091	1,015	699	-35.9	-31.1	
주거용	소계	217	338	112	-48.5	-66.9
	단독	9	13	8	-9.4	-37.7
	연립	57	42	25	-56.2	-40.7
	아파트	152	283	79	-47.8	-72.0
비주거용	소계	874	677	587	-32.8	-13.3
	상업	453	380	416	-8.3	9.4
	공업	312	35	6	-98.1	-83.1
	문교/사회	79	203	150	89.2	-26.1
	기타	30	59	16	-47.5	-73.9

주: 연립은 다세대-다가구 포함

자료: 서울시청 건축지도과, [2005년 1월분 건축허가통계]

• 부동산

- ✓ 서울시 대부분 지역의 하락세 속에 종로구 및 중구의 건설경기 호조
 -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대부분 구에서 감소한 반면, 종로구, 중구, 성동구, 마포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에서는 증가
 - 상업용 건축허가면적을 살펴보면 도심권인 종로구, 중구가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임

- ✓ 건설발주액은 상승세 지속
 - 서울시 건설발주액은 36.9% 증가하여 상승세를 지속하여 건축허가면적의 감소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임
 - 서울시의 건설발주액 증가율은 전국 증가율(14.9%)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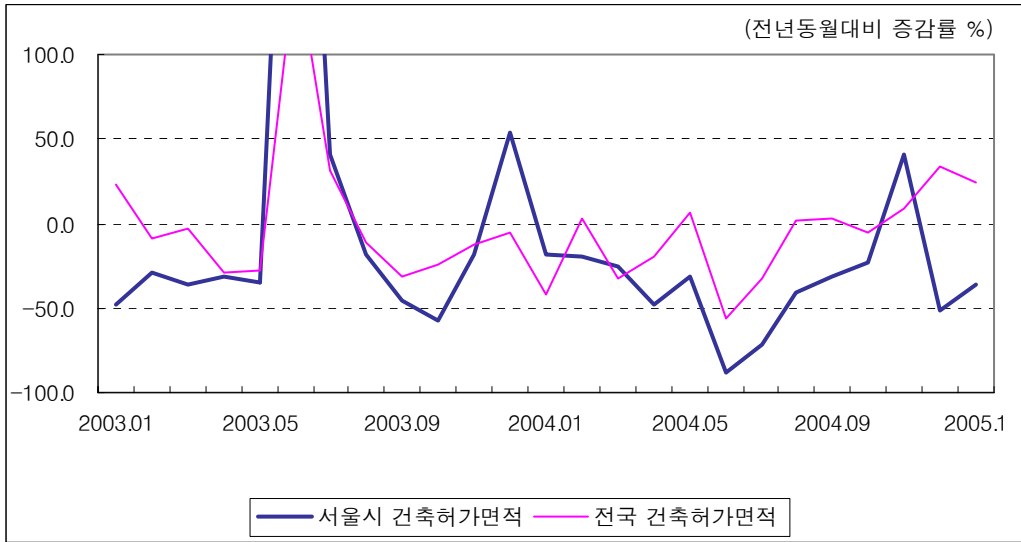
- ✓ 발주자별로 보면 민간 발주, 공종별로 보면 토목공사의 발주가 높은 증가세
 - 토목공사 발주는 176.9% 증가한 반면 건축공사 발주는 22.5%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쳐, 토목부문의 건설 발주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 민간 발주는 58.3% 증가한 반면 공공 발주는 26.2% 증가하는데 그쳐, 민간 발주가 호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표〉 건설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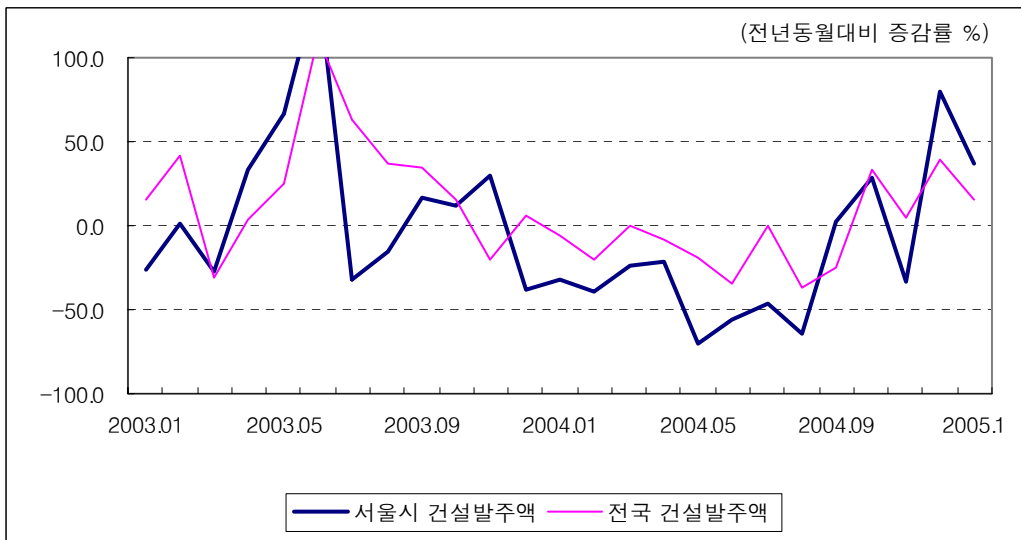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4.1	2004.12	2005.1	전년동월비 증감률	전월비 증감률
전국		4,588,250	15,161,990	5,272,182	14.9	-65.2
서울		722,511	2,424,410	989,382	36.9	-59.2
발주자별	공공	123,418	516,326	155,766	26.2	-69.8
	민간	522,470	1,789,016	827,226	58.3	-53.8
공종별	건축	661,373	1,990,856	810,232	22.5	-59.3
	토목	54,706	416,628	151,460	176.9	-63.6

자료: 서울통계사무소, [2005년 1월 서울시 산업활동동향]



<그림> 건축허가면적 서울, 전국비교



<그림> 건설발주액 서울, 전국 비교

| 주 · 택 · 가 · 격 |

부동산 시장 침체 지속

- ✓ 서울시 주택매매가격은 2005년 1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 전체적인 매수심리의 위축으로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1월에도 지속
 - 그러나 정부의 부분적인 투기규제 완화, 신학기에 대비한 이사수요의 증가, 재건축 단지 호가의 상승 등으로 인해 하락폭은 다소 둔화
 - 서울시 주택가격의 하락폭은 -1.5%로 전국의 하락폭 -1.9%보다 상대적으로는 양호한 편임

- ✓ 강남 하락폭 둔화된 반면 강북 하락세 지속
 - 지역별로는 강남의 하락폭이 다소 둔화된 반면 강북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음
 - 구별로는 전반적인 하락세 속에서도 용산구(4.6%), 서대문구(2.7%), 영등포구(1.5%)는 상승하여 눈길을 끌었음.
 - 반면 강서구(-4.4%), 마포구(-4.3%), 중랑구(-3.7%), 노원구(-3.5%), 관악구(-3.1%)는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 ✓ 아파트 매매가도 하락세 지속
 - 서울시의 아파트 가격은 1월에도 -1.0%가 하락하여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음
 - 4개월 연속으로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이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을 상회 (전국 -0.6% ~ -0.9%, 서울 -1.0% ~ -1.6%)

〈표〉 매매가격 지수

(2003.9=100.0, 단위: %)

구 분	2004.1	2004.12	2005.1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99.4	97.7	97.5	-1.9	-0.3
서울	99.9	98.7	98.5	-1.5	-0.3
아파트(서울)	100.6	99.9	99.6	-1.0	-0.3
지역별	강북	100	98.8	-1.5	-0.3
	강남	99.9	98.7	-1.4	-0.3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2005년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용산구 아파트 매매가 속등

- 지역별로는 강남의 하락폭이 다소 둔화된 반면, 강북의 하락폭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 구별로는 대부분의 구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용산구(7.6%), 성동구(3.9%), 광진구(1.9%), 은평구(1.6%)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
- 반면, 강남구(-3.4%), 노원구(-3.2%), 중랑구(-2.6%), 강서구(-1.8%)는 큰 폭 하락

✓ 서울시 주택전세가격은 작년 하반기 이후 급락세를 지속

- 서울시의 전세가격은 1월에 -7.4%가 하락하여 작년 하반기 이후의 급락세를 지속
- 서울시 주택전세가 하락이 지난 6개월간 연속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
(전국 -3.2% ~ -5.0%, 서울시 -5.5% ~ -7.7%)
- 강북, 강남 모두 주택전세가격 급락(강북 -7.2%, 강남 -7.6%)
- 구별로는 서대문구(-13.6%), 강서구(-9.9%), 동대문구(-11.9%), 강남구(-9.3%), 송파구(-9.1%)의 하락폭이 특히 크게 나타났음

✓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도 하락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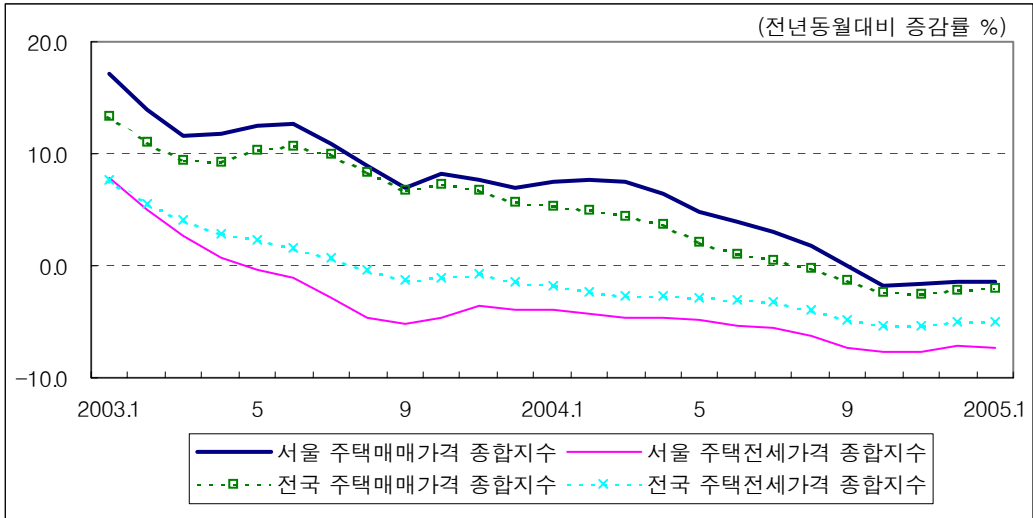
- 서울시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1월에도 -4.7%가 하락
- 서울시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전국에 비해 지난 5개월간 더 심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전국 -1.5% ~ -2.9%, 서울 -3.1% ~ -4.7%)
- 지역별로는 지난 4개월 동안 강남의 하락폭이 강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강북 -3.6%, 강남 -5.4%)
- 구별로는 강남구(-8.7%), 송파구(-7.8%), 강동구(-5.9%), 강서구(-4.7%), 도봉구(-4.6%)의 하락폭이 특히 크게 나타났음

〈표〉 전세가격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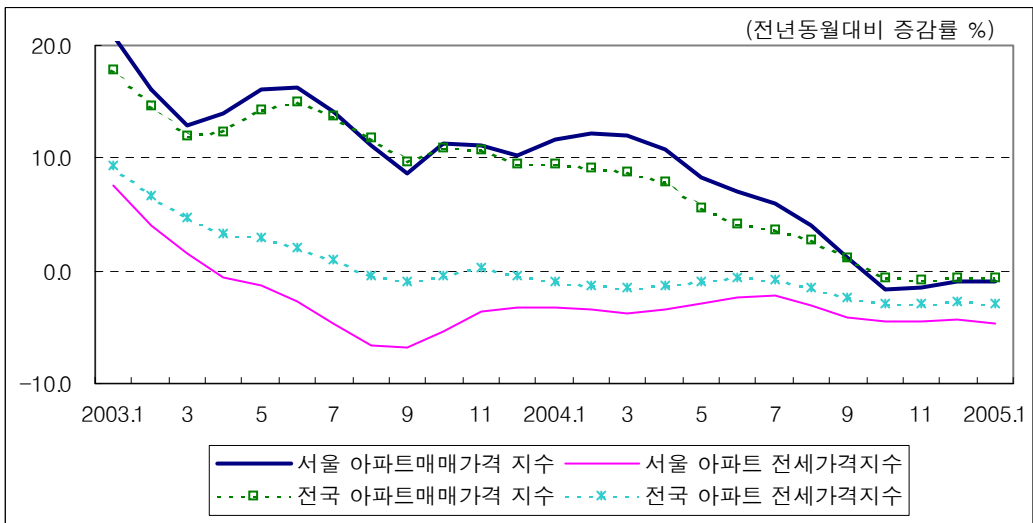
(2003.9=100.0, 단위: %)

구 분	2004.1	2004.12	2005.1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97.7	93.3	92.9	-5.0	-0.5	
서울	96.7	90.2	89.6	-7.4	-0.7	
아파트(서울)	98.0	94.1	93.5	-4.7	-0.6	
지역별	강북	96.6	90.3	89.6	-7.2	-0.8
	강남	96.6	90.1	89.5	-7.6	-0.7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2005년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그림>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